

조부모 의복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이 조부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 영 숙* · 김 용 숙**

군산대학교* · 전북대학교**

The Effects of the Adolescent's Perception of Grandparent's Clothing Behavior on their Attitude toward the Grandparent.

Yi, Yeong-Sug* · Kim, Yong-Sook**

Kunsan Nat'l University · Chonbuk Nat'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adolescent's perception to grandparent's clothing behavior, the effects of grandparent's clothing behavior on the attitudes toward their grand parents, and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their grandparent affecting grandparent's clothing behavior.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provide the foundations for the continuing family educational material to promote the grandparent-grandchildren relationship.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Chonbuk Province through school teachers from June 9th to 18th, 1999, and 485 questionnaires were analysed. Frequencies, percentages,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 t-test, F-test,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adolescent's perception level of grandparent's clothing behavior was higher when grandparents were younger, healthier, and wealthier, in separate living status, and in case of younger and more female adolescents. In case of separate living status, the adolescent's perception level was higher when grandparent and adolescent contacted frequently.

2. The adolescent's perception level of grandparent's clothing behavior was favorable when their total attitude toward grandparent was positive, especially in economic, intellectual, personality, and family relation aspects.

3. The effects of the perception of grandparent's clothing behavior on the adolescent attitude toward their grandparent were higher in case of grandmother, female adolescent, and separate living status, less educated, and in worse health status grandparent.

I. 연구의 필요성

평균수명의 연장과 자녀양육기의 단축으로 인하여 자녀 성장 후 지내는 노년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길어지게 되었고 대다수의 노인들은 이 시기에 조부모로서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 경험하는 조손 관계는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에게 소중한 것이다. 조부모가 일생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손자녀에게 제공함으로써 조부모에게는 생의 의미를 찾게 하고 생산감이라는 성취감을 갖게 해줄 뿐 아니라 손자녀에게는 전 생애 단계에서 중요한 사회 심리적 발달을 촉진하여 주기 때문이다(Kornhaber, 1985). 특히 청소년기 손자녀에게 조부모와의 관계가 결핍되면 이 시기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발달에 어려움을 가져오므로(Baranowski, 1982) 긍정적인 조손 관계의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핵가족의 보편화로 조부모로서의 경험은 과거 손자녀가 함께 생활하였던 가족에서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손자녀와 조부모의 접촉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든 오늘날 가족에서 손자녀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는 과거의 가족에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노인이 고립화되어 가는 현실점에서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의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기 손자녀와 조부모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손자녀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조부모와 손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나 심리적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고 조부모나 노인을 지각대상자로 하는 의복에 대한 대인지각 연구는 거의 없다(Kaiser, 1990). 그러나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한 사람을 연상할 때 의복을 착용한 모습으로 인식하므로, 의복은 신체의 일부로 지각될 뿐 아니라 착용자의 시각적 단서의 중요 부분으로 착용자의 태도, 가치관, 관심, 성격 등을 전달해주므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Horn & Gurel, 1981)는 점에 관심을 두어야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 의복과 외모에 집착이 강하고 타인을 평가할 때 이것들을 중요 단서로 활용하는 때이므로 조부모의 의복행동이 손자녀의 그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부모의 의복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이 청소년 손자녀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에 주는 영향을 밝혀 조손 관계 향상을 위한 노인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노인 교육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일 때 선택되어지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노인들이 건강한 노년생활의 영역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교육내용 가운데 어울리는 옷차림, 의복의 관리, 기성복 고르기와 같은 의복행동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어성연·신상옥, 1996)에서도 보여주는 바와 같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생활 영역 교육은 대단히 의의 있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인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부모의 의복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에 조부모의 의복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들을 위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손자녀는 조부모의 의복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는가?
2. 조부모 의복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은 그들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3. 조부모 의복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이 그들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

전반적인 노인에 대한 태도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명희(1974)는 대상이 된 고등학생이 노인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나 역시 같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필선(1989)은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고 하여 정반대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상반되는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일부는 노인과의 주관적 경험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차용은(1980)도 노인과 접촉이 많거나 가정교육이 엄격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일수록 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고 밝혀 노인에 대한 태도 형성은 조부모와의 경험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윤진과 조석미(198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과 노화에 관한 사실을 얼마나 제대로 인지하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정확하게 인지하는 정도가 응답자의 54.1%에 머무르고 부정적 편견이 28.2%, 긍정적 편견이 9.4%로 나타나 실제 생활에서 노인에 대해 상당한 오해가 여러 변인에 의해 만들어짐을 시사했다.

사실 청소년기 손자녀의 조부모와의 관계는 아동기의 직접적인 긍정적 경험에서 벗어나 좀 더 심리적, 감정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리적 별거에도 불구하고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Cherlin & Furstenberg, 1985)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조부모에 대한 청소년기 손자녀의 태도는 심리적, 감정적 연결이 중요시됨으로 동거여부와 같은 단순한 접촉 외에도 접촉의 성격이나 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들은 성, 연령, 건강과 같은 조부모와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동거여부와 같은 접촉정도 등을 지적하고 있다.

조부보다는 조모가 손자녀와 더욱 가까운 애정적 결속을 유지하며 종적인 세대관계에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 내 접촉과 대화를 이끌어온 친족유치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에서 조부는 제외되고 있다(박의순, 1990). 조부모의 연령증가는 손자녀와의 관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하므로 손자녀는 조부모의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지각할 것이다. 연령증가는 조부모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조부모의 건강은 손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건강이 좋은 조부모를 더 선호한다는 결과(박유미, 1986; 서동인, 1989; 김혜경, 1997)는 손자녀가 조부모를 지각할 때 연령이나 건강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음을 함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부모의 특성과 함께 손자녀의 성(조명희, 1974; 차용은, 1980; 안영숙, 1993), 나이와 같은 변인도 조부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부정적 태도가 증가한다는 결과(이선자, 1989; 윤성혜, 1990)를 밝히고 있다. 이선자(1989)는 청년기에는 아동기보다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청년기의 관심사가 자기 지향적이고 노인문제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한편 청소년의 노인 관에는 조부모와의 접촉정도나

동거 여부가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와의 접촉이 많으면 손자녀가 감정적인 친밀도를 가지는 등 조부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다(박의순, 1990; 서동인, 1990)고 하나 동거 경험의 영향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는 일치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임장순, 1979; 차용은, 1980)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임인혜, 1987)가 엇갈리고 있어 일관성 있는 결론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손자녀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가 단순히 동거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 밖의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그 외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2. 대인 지각과 노인의 의복행동

외모에 기초를 두고 타인에 대하여 판단하는 과정을 대인지각이라 한다. 대인지각이란 타인의 행동을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조직화하고 직접 알 수 없는 타인의 속성을 자신의 관찰을 통하여 추측하므로 개인에 따라 지각의 차이가 심하며, 지각 대상에게 원인 귀속을 할 수 있고, 지각자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지각대상자와 상호작용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다(Schneider, et al, 1979).

의복은 착용자를 지각하는데 있어 용모와 함께 중요한 단서가 되며 착용 자에 대한 무엇을 전달해 주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의복은 착용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무언의 언어 또는 상징이라 불린다. 의복의 상징적 역할은 의복이 신체에 입혀져 타인에게 직업, 행동양식, 취향과 같은 단서를 보여줌으로써 착용 자와 지각자 사이에서 의미전달이 가능하게 된다. 매력적인 의복을 착용하면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얻을 수 있으며 후광효과를 발휘하여 다른 특질까지도 긍정적 평가를 받게 해 준다(강혜원, 1995).

유행 의복을 착용한 사람은 타인의 눈에 곧 띄고 외향적 인상을 주고, 정장을 착용한 남자는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직, 높은 지위, 품위 있으며, 호감이 가며, 외향적이나 비활동적이고, 권위적으로 보인다(Damhorst, 1984-85; 남미우, 1992). Bell(1991)은 남성 정장 착용 자는 매력적으로 평가

되고, 보수적 스타일 착용 자는 지성적으로, 그리고 대담한 스타일 착용 자는 사회적인 사람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Lennon과 Miller(1984-85)는 신체외모 단서는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나 이 단서는 다른 단서와 같이 있을 때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한 단서가 첫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같은 차원의 다른 단서가 존재할 때 단서가 각각 존재할 때보다 감소하나 반대 차원의 단서와 같이 있을 때 효과는 증가한다. 이와 같이 신체외모 단서는 인상 형성시 똑같은 가중치를 갖지 않고 가중치 평균값을 갖는다.

의복은 노인의 매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므로 신중한 의복선택을 통하여 외적 매력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외모에 자신이 있는 노인들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Ebeling & Rosencrantz, 1961; Ryan, 1966).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의복의 사회적 중요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Hoffman, 1970). 노인들은 사회적 상황에 부적절한 의복을 착용했을 때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며, 특히 여자 노인들은 외출 시 적합한 의복이 없어 외출을 삼가거나 마음을 상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강혜원·이선경, 1990). 의복은 노인에게 자아상을 높여주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때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단정한 의복은 노인들의 약화된 사회적 권위를 높여주고,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의 인정을 받는데 도움을 주므로 행복한 노후 생활의 지지 수단으로 그 중요도가 컸다(Callis, 1982; 이명희·이은실, 1997; 황진숙, 1998). Kaiser와 Chandler(1984)도 노인들은 청결하고 깔끔한 느낌의 의복을 선호하며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에 호감을 갖는다 하였다. 이들은 대중매체에 소개되는 주인공 노인의 외모도 깔끔할 때 많은 관심을 보이는 편이었다. 노인들이 깔끔함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노인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사회화의 과정에서 청결에 대한 강조가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되었다.

여자 노인들은 의복의 정숙성을 가장 중요시하며 유행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보수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노인들은 유행이 연령과 변화된 체형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으며 기타 유행은 허례허식이라거나 유행이 너무 자주 바뀐다고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김재숙(1992)은 형태적 범주화 이론을 적용하여 노년

기 여성이 젊었을 때 착용했던 의생활 양식은 이들의 의복범주화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 풀이하였다. 또 이 때문에 노인 의복은 다른 연령층과 다르게 타인에게 지각된다. 유행하는 의복이나 매력 있는 의복 착용 자는 사교적이고 인기 있고 성적 매력이 있게 지각되나 보수적 의복 착용 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몸의 곡선이 드러나 보이는 의복 착용 자는 성적 매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받았으나 좋은 부류의 여성이 아니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몸의 곡선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의복 착용 자는 지각자에게 호감과 친절하고 따뜻한 인상을 주었다(Abbey et al., 1987). 대담한 유행 의복 착용 자도 사교적이고 매력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으로 지각되나 신뢰도가 적고 성실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되었고 보수적 의복은 진실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을 주었다(Paek, 1986).

청소년들은 노인들의 의복이 수수하며 어둡다고 지각하였으나 노인들은 자신의 의복에 대하여 품위 있고, 기본 좋은 인상을 타인에게 준다고 의식하였다. 나이가 많이 든 노인들은 의복의 사회적 규범을 강하게 의식하였고 개성적이지 못하다고 의식하였으나 활동 반경이 넓은 노인들은 사회적 규범을 강하게 의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착용자의 의복 이미지는 지각자와 서로 다르며, 노인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나이와 활동 스타일에 따라 달랐다(詠節子·松平光男, 1992). 의복의 현실적 자아 이미지와 이상적 자아 이미지에 따른 여자 노인들의 지각 연령을 조사한 결과 50대는 자신을 50대로 지각하지만, 60대는 50대로, 70대는 60대로 지각하였다. 그러므로 60대와 70대 여자 노인들은 자신의 연령보다 젊은 층의 의복을 구입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들은 현실적 자아 이미지와 이상적 자아 이미지에서 모두 좋은 인상을 바라고 있었다(배현숙·유태순, 1998).

이상과 같이 의복은 우리와 가장 친밀한 부분으로 자기 개념의 직접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복은 자기 고양의 원동력이며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 자기수용감과 자기존중감을 높일 수 있으며, 의복 규범에 맞는 적절한 의복 차림은 착용자의 능력 평가와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전북 도시 지역에 소재한 3개 중학교와 3개 고등

학교 1, 2학년 재학생으로 조부모 중 한 분이라도 생존하신 조부모를 둔 학생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자인 청소년 손자녀와 그들의 조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2. 조사도구

노인의 의복행동은 연구자들이 선행연구(詠節子·松平光男, 1992; 배현숙·유태순, 1998)를 참고로 총 24문항을 구성하여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scree 검증 및 varimax 회전방법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표 2>와 같이 최종적으로 22문항이 선택되었다. 결국 의복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Cronbach's $\alpha = .82$)은 활동성 9문항(Cronbach's $\alpha = .73$), 유행성 9문항(Cronbach's $\alpha = .84$), 품위성 4문항(Cronbach's $\alpha = .76$)으로 구성되었다.

조부모에 대한 태도는 선행연구(Robertson, 1977; 차용은, 1980; 이선자, 1989)를 참고로 작성

하여 가족학 전공자 3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아 조부모의 신체적 측면, 지적 측면, 성격적 측면, 경제적 측면, 가족관계 측면으로 구성된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각 질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아주 그렇다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9이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1999년 6월 9일부터 18일까지 교사를 통해 배부된 질문지를 교사 지도하에 현장에서 응답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510명에게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부실 기재한 질문지를 제외하여 자료분석에 최종적으로 사용된 설문지는 485부이었다. 수집된 질문지는 SPSS/PC-WIN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요인분석, 일원분산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정 등으로 분석하였다.

<표 1> 조부모와 손자녀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
성	남 자	163 (33.6)
	여 자	322 (66.4)
나이	60세 이하	17 (3.5)
	61세 - 70세	162 (33.4)
	71세 이상	306 (63.1)
건강상태	건강하다	204 (42.5)
	보통이다	175 (36.5)
	나쁘다	101 (21.0)
조부모 교육정도	초등학교 졸업이하	287 (70.0)
	중학교 졸업이상	123 (30.0)
조부모 생활정도	넉넉하다	98 (20.7)
	보통이다	342 (71.9)
	어렵다	35 (7.4)
손자녀와 동거여부	동거	163 (34.4)
	비동거	311 (65.6)
손자녀와 접촉정도	자주	28 (10.1)
	가끔	195 (61.3)
	거의 없음	75 (28.5)
손자녀 나이	중학생	249 (51.3)
	고등학생	236 (48.7)
손자녀 성	남	229 (47.4)
	여	254 (52.6)

〈표 2〉 청소년 손자녀가 지각한 조부모 의복의 영역 요인분석

문항	점정	타당도	
		요인적재량	요인명
젊어보인다--	-- 나이들어보인다	.78	활동성
편안해보인다	불편해보인다	.67	
활동적이다 -----	비활동적이다	.81	
간단하다 -----	복잡해 보인다	.62	
낯선하다 -----	비만하다	.52	
따뜻한 인상이다 -----	차거운인상이다	.42	
깔끔하다 -----	지저분하다	.49	
깨끗하다 -----	더럽다	.47	
평상복차림이다	정장차림이다	.43	
고유값 : 8.05 누적분산 : 20.96% Cronbach 알파 = .82			
우아하다 -----	천박하다	.55	유행성
고급스럽다 -----	싸구려같다	.62	
세련되었다 -----	촌스럽다	.57	
화려하다 -----	수수하다	.80	
멋있다 -----	멋없다	.46	
개성적이다 -----	평범하다	.80	
유행에 민감하다 -----	유행에 무관하다	.78	
산뜻하다 -----	칙칙하다	.81	
눈에 잘 띈다 -----	눈에 잘 띄지 않는다	.53	
고유값 : 3.03 누적분산 : 41.94% Cronbach 알파 = .73			
고상하다 -----	저속하다	.51	품위
깔끔하다 -----	경박하다	.50	
품위있다 -----	품위없다	.60	
단정하다 --	흐트러진 옷차림이다	.73	
고유값 : 8.05 누적분산 : 58.96% Cronbach 알파 = .76			

IV. 결과 및 해석

1. 손자녀의 조부모의 의복행동에 대한 지각

조부모와 손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부모의 의복행동에 대한 손자녀의 지각 차이 검증결과는 〈표 3〉와 같다.

손자녀는 조부모의 성에 따라 조부모의 의복행동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없었다. 즉 손자녀는 조부모의 의복행동 지각시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인가에 따라 다르게 지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손자녀는 조부모의 나이, 건강상태, 교육정도, 생활정도, 조부모와의 동거여부, 조부모와 비동거시 의사소통 빈도, 손자녀의

나이, 손자녀의 성별, 조부모와 부모사이의 관계에 따라 조부모의 의복행동 지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손자녀는 조부모의 특성에 따라 의복행동에 대한 지각을 달리하였는데 특히 조부모의 나이, 건강상태, 교육정도, 생활정도에 따라 의복의 유행성, 품위성, 그리고 의복행동 전체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손자녀는 조부모가 젊을수록, 건강할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의복의 유행성, 품위성 그리고 의복행동 전체에 대하여 좋게 지각하였다. 이 결과는 노인들의 의생활은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편안한 것을 좋아하며(유경오, 1989) 사회적 규범에 얽매이며 개성을 잃어가기

〈표 3〉 조부모와 손자녀의 일반 변인에 따른 조부모의 의복 행동 지각

의복행동 영역		활동성		유행성		품위성		의복 행동 전체	
		M	D	M	D	M	D	M	D
조부모와 손자녀의 일반적 특성	남 자	2.02		2.00		2.01		6.03	
	여 자	2.05		1.99		1.97		6.01	
	t	-.42		.11		.76		.23	
조부모의 나이	60세 이하	2.06		2.12	A	2.00	A	6.12	A
	61세 - 70세	2.07		2.11	A	2.06	A	6.24	A
	71세 이상	2.03		1.93	B	1.93	B	5.89	B
	F	.36		6.03**		2.87*		5.31**	
조부모의 건강상태	건강하다	2.04		2.11	A	2.03	A	6.18	A
	보통이다	2.07		1.99	B	2.02	A	6.08	A
	나쁘다	2.01		1.76	C	1.83	B	5.60	B
	F	.39		13.18**		5.16**		9.33**	
조부모의 교육정도	초등학교 졸업이하	2.04		1.93	A	1.93	A	5.90	A
	중학교졸업 이상	2.04		2.18	B	2.12	B	6.34	B
	t	.02		4.18**		3.26**		3.70**	
조부모의 생활정도	넉넉하다	2.08		2.21	A	2.20	A	6.50	A
	보통이다	2.04		1.94	B	1.95	B	5.93	B
	어렵다	1.97		1.91	B	1.66	C	5.54	B
	F	.38		7.37**		11.71**		10.33**	
손자녀의 성	남 자	1.96	A	2.04		1.91	A	5.90	A
	여 자	2.11	B	1.96		2.04	B	6.11	B
	t	3.22**		1.61		2.71**		2.06*	
손자녀의 나이	중학생	2.04		2.04	A	1.94		6.03	
	고등학생	2.04		1.94	B	2.03		6.01	
	t	.00		3.73*		3.25		.01	
조부모-손자녀 동거여부	동 거	1.98		1.95		1.89	A	5.82	A
	비동거	2.05		2.01		2.01	B	6.08	B
	t	1.40		1.19		2.29*		2.40*	
조부모-손자녀 비동거시	아주 자주	2.00		2.30	A	2.15		6.45	A
	가 끄	2.11		1.99	B	2.04		6.13	B
	거의 없음	2.01		1.95	B	1.95		5.90	B
	F	1.23		5.05**		1.89		3.05*	

* p<0.05, ** p<0.01

D : Duncan's grouping

때문(詠節子와 松平光男, 1992)으로 풀이되며 이명희와 이은실의 연구(1997), 황진숙(1998)의 연구 결과에서도 경제적 여유가 있고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자신의 의복이나 신체장식에 관심이 많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조부모와 손자녀의 동거여부는 조부모 의복의 품위성과 의복행동 전체에 대한 지각에 대하여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손자녀는 조부모 의복의 품위성과 의복행동 전체에 대하여 높게 지각하였다. 이것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동거 시 손자녀는 조부모와 친밀해져 조부모를 어렵게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비동거 시 이들 사이의 접촉 정도에 따라 손자녀는 조부모 의복의 유행성과 의복

행동 전체에 대한 지각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들 사이에 전화나 방문을 통한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손자녀는 조부모 의복의 유행성과 의복행동 전체에 대하여 높게 지각하였다.

손자녀의 나이는 조부모 의복의 유행성에 대한 지각에 대하여 유의 차를 나타냈다. 손자녀는 어릴수록 조부모 의복의 유행성 지각이 높았다. 손자녀의 성은 조부모 의복의 활동성, 품위성, 의복행동 전체에 대한 지각에 대하여 유의 차를 나타냈다. 손녀의 경우 조부모 의복의 활동성, 품위성, 의복행동 전체에 대한 지각이 높았다. 이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타인 지각 시 상황적 조건인 의복을 도구로 활용하는 빈도가 더 높다는 의적귀인이론을 지지하였다.

조부모와 부모 사이의 관계는 손자녀의 조부모 의복의 활동성, 유행성, 품위성, 의복행동 전체에 대한 지각에 대하여 유의 차를 나타냈다. 조부모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손자녀는 조부모 의복의 활동성, 유행성, 품위성, 의복행동 전체에 대한 지각이 높았다. 이와 같이 손자녀는 조부모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조부모 의복에 대하여 좋은 인

상을 지니게 되는 점은 의복은 대인 지각에 있어 지각이 일어나는 사회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강혜원, 1995) 때문으로 풀이되어 노인을 위한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조부모의 의복행동과 청소년 손자녀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

청소년 손자녀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가 그들의 조부모 의복행동 지각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손자녀의 의복행동에 대한 지각은 조부모에 대한 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즉 의복행동을 잘하는 조부모에 대해 청소년기 손자녀는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 특히 Duncan검증 결과 조부모 의복행동을 좋게 지각하는 집단과 보통인 집단, 좋지 않게 지각하는 집단 간의 차이가 두드러져서 의복행동에 대한 호의적 지각은 조부모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 점은 의복이 대인관계에서 "후광효과"를 하기 때문

<표 4> 청소년 손자녀가 지각한 조부모의 의복행동에 따른 손자녀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

의복행동 영역	신체적		경제적		지적		성격적		가족관계		전체	
	M	D	M	D	M	D	M	D	M	D	M	D
활동성	상	21.88	19.17	A	20.51		23.14	A	21.08	A	105.80	A
	중	21.00	16.33	B	19.90		21.91		19.31	B	98.44	B
	하	20.32	16.02	B	19.80		20.85	B	18.44	B	95.44	B
	F	1.83	8.19**		.46		3.50*		6.89**		7.16**	
유행성	상	21.77	18.17	A	22.75	A	24.39	A	20.45	A	107.50	A
	중	20.75	16.23	B	19.51	B	21.48	B	19.05	B	98.00	B
	하	21.23	16.83		19.05	B	21.07	B	19.80		97.01	B
	F	1.49	4.25*		16.76**		11.71**		3.54*		12.99**	
품위성	상	21.11	19.21	A	21.20	A	24.53	A	21.07	A	107.12	A
	중	21.05	16.24	B	19.87	B	21.66	B	19.48	B	97.83	B
	하	20.60	15.67	B	19.01	B	20.00	C	18.99	B	94.77	B
	F	.26	11.38**		3.91*		16.04**		7.60**		12.36**	
전체	상	21.12	18.56	A	21.64	A	24.21	A	20.77	A	106.30	A
	중	21.14	16.30	B	19.92	B	21.70	B	19.07	B	98.13	B
	하	20.18	16.22	B	18.39	C	20.33	C	19.45		94.59	B
	F	1.17	5.71**		8.36**		11.46**		4.79**		10.21**	

* p<0.05. ** p<0.01

D : Duncan's grouping

으로 풀이할 수 있다(Horn & Gurel, 1981)

조부모의 의복행동은 손자녀가 조부모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지적, 성격적, 가족관계적 측면의 태도에 서 모두 유의한 영향을 준다. 즉 조부모 의복행동을 좋게 지각하는 손자녀는 조부모의 경제적인 태도를 좋게 가질 뿐 아니라 지적, 성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좋은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다. 더구나 의복행동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가지면 조부모의 가족관계적 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보아 청소년기 손자녀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가 의복행동에 대한 지각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복행동에 대한 지각을 의복행동의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의복행동 중 활동성은 특히 경제적, 성격적, 가족관계 측면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행성과 품위성 영역의 의복행동은 경제적, 지적, 성격적, 가족관계적 측면에 끌고루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전체적인 조부모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영역 중 유행성을 잘 고려한다고 지각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은 특히 조부모의 지적 측면과, 품위성을 잘 고려한다고 지각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은 성격적 측면에 크게 유의한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의복행동 지각의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침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영향은 조부인가 조모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조사결과 조모의 의복행동이 조부의 그것보다 손자녀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침이 밝혀졌다(표 5 참조). 조부, 조모 모두 의복행동을 잘한다고 지각하는 경우에 그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데 조부에게는 지적측면과 성격적 측면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조모에게는 경제적, 지적, 성격적,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기 손자녀는 남성인 조부의 의복행동에 대해서보다 여성인 조모의 의복행동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조부모 의복행동에 대한 지각이 조부모에 대한 태도에 주는 영향이 조부에게보다 조모에게 더 큰 것은 의복행동이 남성을 평가할 때보다 여성을 평가할 때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점이 조부모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조부모의 성 뿐만 아니라 손자녀의 성에 따라서도 나타나는데 손자인 경우에는 조부모의 의복행동에 대한 지각이 그들에 대한 태도에 전

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반해 손녀의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표 6 참조). 즉 손자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에는 조부모의 의복행동에 대한 지각여부가 관계가 없으나 손녀는 조부모의 의복행동에 호의적으로 지각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들에 대한 태도 차이가 월등하게 달리 나타났다. 전체적인 조부모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가짐은 물론이고 경제적, 지적, 성격적,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좋은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의복행동은 남성보다 여성과 관련이 깊다는 상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남성인 조부와 손자는 여성인 조모와 손녀에 비해 관심을 적게 기울이기 때문에 의복행동에 대한 지각이 조부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덜 미치는 것이다.

조부모의 연령과 건강 변인도 관련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70세 이하의 경우에는 경제적, 지적, 성격적 측면에, 71세 이후에는 지적, 성격적 측면에 영향을 주었다. 조부모의 건강은 손자녀가 조부모 신체적 측면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유일하게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은 조부모 의복행동에 대한 손자녀의 지각이 조부모의 신체적 측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때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집단에서는 의복행동을 잘하는 것이 잘 못하는 것보다 신체적 측면을 포함한 지적, 성격적, 가족관계적인 측면과 전체적인 태도에 긍정적인 결과를 주었다.

조부모의 교육정도를 초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과 중학교 졸업 이상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교육을 덜 받은 집단의 조부모의 의복행동에 대한 지각이 더 영향을 주었다. 교육을 받은 집단의 조부모는 손자녀가 조부모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때 의복행동 이외의 면에 의해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점이 많으나, 교육을 덜 받은 집단에서는 교육을 더 받은 집단에 비해 의복행동 이외의 것보다 상대적으로 의복행동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조부모의 생활정도는 생활이 보통이상 되는 집단에서만 조부모 의복행동에 대한 지각이 손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 생활이 어려운 집단에서는 조부모 의복행동에 대한 지각이 손자녀의 태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어려운 생활환경에서는 의복행동에 까지 관심을 줄 수 있는 여유로운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생활이 중류이상인 집단에서는 조부모 의복행동에 대한 지각이 전체적인 조

〈표 5〉 조부모 변인별 조부모의 의복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

변인	의복 행동	신체적		경제적		지적		성격적		가족관계		전체				
		M	D	M	D	M	D	M	D	M	D	M	D			
조부모의 성	조부	상	20.95		17.69	A	21.95	A	24.08	A	20.39		105.08	A		
		중	20.76		16.16		19.96		21.98		19.43		98.30	B		
		하	19.74		15.11	B	17.88	B	20.62	B	18.88		92.25	B		
		F	.55		2.40		3.04*		3.28*		1.02		4.77**			
	조모	상	21.19		18.94	A	21.50	A	24.26	A	20.94	A	106.84	A		
		중	21.33		16.38	B	19.91	B	21.57	B	18.90	B	98.05	B		
		하	20.45		16.90		18.70	B	20.15	B	19.79		96.02	B		
		F	.60		4.07*		5.42**		8.23**		4.50**		6.13**			
		조부모 연령	70이하	상	18.55		18.83	A	20.38	A	25.05	A	20.61	A	103.44	A
				중	21.07		15.38	B	18.87		21.36	B	18.81	B	95.39	B
하	19.80				14.32	B	17.35	C	20.32	B	18.64		90.45	B		
F	2.34			8.64**		3.45*		6.06**		2.47		5.42**				
71이상	상		22.01		18.35		22.33	A	23.53	A	20.62		106.87	A		
	중		21.21		16.87		20.35	B	21.94	B	19.25		99.63	B		
	하	20.28		17.68		19.28	B	20.40	B	19.85		97.51	B			
F	1.48		1.44		6.34**		4.06*		1.89		4.21*					
조부모 건강	보통이상	상	18.67	A	17.32		20.10		23.06		19.86		99.04			
		중	20.36	B	15.91		19.66		21.69	A	19.03		96.66			
		하	20.25		16.28		18.39		20.48	B	19.62		95.03			
		F	2.92*		1.54		2.17		3.58*		1.12		.85			
	나쁨	상	24.78	A	20.50		23.89	A	26.06	A	22.35	A	117.60	A		
		중	24.40	A	17.95		21.06	B	21.72	B	19.25	B	104.40	B		
		하	19.57	B	15.71		18.42	B	19.00	B	17.85	B	90.57	C		
		F	3.37*		2.59		6.67**		8.75**		4.88**		9.84**			
		조부모 교육정도	초등 이하	상	21.89		18.36	A	22.02	A	24.59	A	20.87	A	107.75	A
				중	21.07		16.21	B	20.18	B	22.02	B	19.04	B	98.50	B
하	21.29				16.11		18.82	B	20.14	C	18.07	B	95.05	B		
F	.56			3.70*		4.30*		8.84**		5.93**		9.26**				
중고 이상	상		20.45		18.36	A	19.81		23.54	A	20.81		103.00	A		
	중		21.00	A	16.20		19.08	A	21.04	B	18.72		96.05	A		
	하	18.89	B	15.21	B	17.21	B	19.82	C	18.96		90.10	B			
F	2.34		2.56		3.12*		2.15		1.39		4.11*					
조부모 생활정도	중이상	상	20.67		18.37	A	21.72	A	24.32	A	20.94	A	106.05	A		
		중	20.85		16.06	B	19.70	B	21.58	B	19.05	B	97.22	B		
		하	20.07		15.19	B	18.10	C	20.04	C	18.78	B	92.21	C		
		F	.74		7.55**		9.31**		12.11**		7.47**		14.13**			
	하	상	21.58		18.58		20.66		15.00		19.08		102.75			
		중	24.73	A	19.05		22.63		17.00		19.31		109.05			
		하	18.25	B	22.00		18.00		17.00		19.00		96.00			
		F	3.50*		.58		1.78		1.64		.01		1.48			

* p<0.05, ** p<0.01

D : Duncan's grouping

부모에 대한 태도는 물론이고 경제적, 지적, 성격적, 가족관계적 측면 태도에서 모두 영향을 주었다.

조부모와 손자녀의 동거여부도 의복행동 지각이 손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 있는 변인이다. 동거하는 조부모에 비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는 그들의 의복행동에 대한 지각이 손자녀의 태도에 더 많

은 영향을 준다. 동거하는 손자녀는 의복행동에 대한 지각이 조부모의 지적, 성격적 측면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데 비해 동거하지 않는 손자녀는 경제적, 지적, 성격적, 가족관계적 측면의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 동거하는 손자녀는 조부모에 대해 의복행동 이외의 것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태도에 있

<표 6> 손자녀의 성과 동거여부별 조부모의 의복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

변인	의복행동	신체적		경제적		지적		성격적		가족관계		전체			
		M	D	M	D	M	D	M	D	M	D	M	D		
손자녀의 성	손자	상	20.44		17.05		20.78		23.13		19.21		100.63		
		중	20.80		16.12		20.21		22.03		19.26		98.42		
		하	19.55		17.80		19.23		20.60		20.20		97.20		
	F		1.17		1.35		1.11		1.82		.50		.33		
손녀	상		21.81		20.10	A	22.51	A	25.32	A	22.37	A	112.13	A	
		중		21.44		16.38	B	19.70	B	21.43	B	18.90	B	97.81	B
		하		20.78		15.07	B	17.78	C	20.14	B	18.90	B	92.68	C
	F		.45		11.27**		8.17**		13.51**		14.14**		18.83**		
동거여부	동거	상	22.26		17.96	A	22.50	A	25.07	A	19.88		107.69	A	
		중	21.31		15.98	B	20.00	B	22.01	B	19.00		98.23	B	
		하	19.16		15.11		17.27	C	20.11	B	18.83		90.50	C	
	F		1.92		2.57		7.40**		5.40**		.66		7.10**		
비동거	상		20.51		18.87	A	21.18	A	23.75	A	21.24	A	105.57	A	
		중		21.04		16.46	B	19.71		21.58	B	19.10	B	97.92	B
		하		20.36		15.64	B	18.54	C	19.72	C	18.90	B	93.16	C
	F		.60		6.03**		3.83*		8.99**		7.04**		9.07**		

* p<0.05. ** p<0.01

D : Duncan's grouping

어서도 다른 측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반해 동거하지 않는 손자녀는 조부모의 다른 측면은 잘 모르므로 의복행동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낮은 사람보다 초면인 사람의 경우 의복 등 외관이 그 사람의 판단기준으로 더 사용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손관계 향상을 위한 노인교육이나 청소년과 함께 하는 연로자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485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부모의 의복행동에 대한 지각이 청소년 손자녀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손자녀는 조부모가 젊을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건강할수록,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조부모 의복의 유행성, 품위성, 의복행동 전체에 대한 지각이 높았다. 또한 손자녀는 조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어린 경우, 그리고 손녀가 조부모 의복행동에 대한 지각이 호의적이었다.

둘째, 조부모 의복행동에 대한 지각이 좋을수록 청소년기 손자녀는 그들에 대한 전반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가질 뿐 아니라 경제적, 지적, 성격적, 가족관계적 측면의 태도도 긍정적으로 가진다.

셋째, 조부모 의복행동에 대한 지각이 손자녀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에 주는 영향은 조부모보다 조모의 경우, 손자보다 손녀, 동거보다 비동거, 생활정도가 어려운 집단보다 중류이상의 집단, 그리고 교육을 덜 받은 집단과 건강이 좋지 않은 집단에서 더 컸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가 조부모의 의복행동에 대한 지각에 의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손자녀가 조부모 의복행동에 대한 지각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조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 점점 더 증가하는 시점에서 노인교육을 할 때의 방향을 시사해 준다. 즉 조손관계 향상을 위한 노인 교육 프로그램에 바람직한 노인의 의복행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기 손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부모 의복행동의 영역이 활동성, 유행성, 품위성이며 이 중에서도 특히 유행성과 품위성이 조부모에 대한 태도에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

할 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의복행동의 역할이 강조된다. 따라서 노인의 바람직한 의복행동 교육 내용에 이와 같은 결과를 참조로 내용 구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현재 조부모인 사람 뿐 아니라 앞으로 조부모가 될 사람에게도 청소년기의 손자녀와의 관계 향상을 위해 조부모역할에 대한 예비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으로는 첫째, 연구대상이 전북지역 일부 중소도시의 청소년에 국한되어 임의 추출되었으므로 연구결과의 확대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도시와 읍면 지역의 청소년을 포함하여 조사, 비교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조부모 의복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을 통하여 조부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이는 조부모의 의복행동의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조부모의 실제 의복행동을 조사하여 이것이 청소년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부모의 청소년 의복행동에 대한 지각과 태도를 함께 조사한다면 조손관계에 미치는 상호간의 의복행동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손자녀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에 의복행동에 대한 지각의 영향을 밝히려는 첫 번째의 시도로써 손자녀의 조부모 의복행동에 대한 지각을 단면적으로만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가 앞으로 더욱 검증이 필요한 감정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의복행동이 조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앞으로 노인세대대를 위한 평생교육자료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혜원(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교문사.
- 강혜원·이선경(1990). 노년층 남녀의 사회심리적 측면의 의복연구. 연세대 생활과학논집 4, 5-16.
- 곽필선(1989). 노인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수(1993). 부모-조부모관계와 손자녀-조부모 친밀도가 청소년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사실인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숙(1992). 의복범주, 유행성 및 착용자 연령의 인상 효과에 대한 연구: 여성 노인의 의생활 양식과 관련지어.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경(1997).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조부모와의 세대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65-80.
- 남미우(1992).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 변인이 남자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의순(1990). 대학생이 지각한 조모와의 관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배현숙·유태순(1998). 노년층 여성의 의복 자아 이미지에 따른 소비자특성분석. 한국 패션 비즈니스학회지 2(4), 112-125.
- 서정기(1992). 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관계와 노인에 대한 인식.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안영숙(1993). 노인에 대한 국민학생의 인식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어성연·신상옥(1996). 노인의 가정생활교육에 대한 학습요구도 분석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4(1), 93-106.
- 유경오(1989). 우리나라 소비자의 가치관과 기업 이미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성혜(1990). 청년 중년 노년층의 노인에 대한 인식 비교.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진·조석미(1982). 경산 노화사실인지척도의 구성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 5-15.
- 이명희·이은실(1997).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노년 여성의 외모관심과 자신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6), 1072-1081.
- 이혜숙(1988).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임인혜(1986). 한국 청소년의 노인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용은(1980). 노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전주대학교 논문집 9, 12-23.
- 최춘혁(1992). 노인과 노인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연구-서울시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진숙(1998). 남녀 노인층의 의복태도, 의복행동, 쇼핑에 인구통계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 연구. 복식, 37, 5-15.
- Abbey, A., C. Gozzarelli, K. McLaughlin, &

- R. Harnish(1987). The effects of clothing and dyad sex composition on perceptions of sexual intent: Do women and men evaluate these cues differentl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7, 108-126.
- Baranowski, M.D.(1982). Grandparent- adolescent relations: Beyond the nuclear family. *Adolescence* 17, 575-584.
- Barranti, C.C.R.(1985). The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 family resource in an era of voluntary bonds. *Family Relations* 34(3), 343-352.
- Bell, E.L.(1991). Adult's perception of male garment style.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0(1), 8-12.
- Brubaker, T.H.(1990). Families in later life: A burgeoning research area.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959-981.
- Burke, J. L.(1982). Young children's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older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4(3), 205-221.
- Cherlin, A.J. and Furstenberg, F.F.(1986). The new American grandparent: A place in the family, a life apart. In Denham, T.E. & Smith, C.W.(1989). The influence of grandparents on grandchildren: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sources. *Family Relations* 38(3), 345-350.
- Damhorst, M. L. (1990). In a search of common thread: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ed through dres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0(1), 1-12.
- Denham, T.E. and Smith, C.W.(1989). The influence of grandparents on grandchildren: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sources. *Family Relations* 38(3), 345-350.
- Ebeling, M. & M.L. Rosencrantz(1961). Social personal aspects of clothing for older women. *Journal of Home Economics*, 53, 464-465.
- Heyer, D.E. & N.J. Chandler(1981). Clothing designs to meet the needs of elderly women. *ACTPC Proceedings*.
- Horn, M & L. Gurel(1988).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Houghton Mifflin Co.
- Ivester, C. & King, K.(1977). Attitudes of adolescents toward the aged. *The Gerontologist* 17(1), 85-89.
- Kaiser, S.B. & J.L. Chandler(1984). 50-plus aged consumer processing of fashion information from mass media. *ACTPTC Proceedings*, 217-218.
- Kaiser, S.B.(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Macmillan Pub. Co.
- Kennedy, G.E.(1992). Quality in grandparent/grand child relationships. *Int'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5(2), 83-98.
- Kornhaber, A.(1985). Grandparent and the "New social contact". 김연수(1993)에서 재인용
- Kornhaber, A. and Woodward, K.L.(1981). Grandparent/grandchildren: The vital connection. In Barranti, C.C.R.(1985). *The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 family resource in an era of voluntary bonds*. *Family Relations* 34(3), 343-352.
- Lennon, S. J. & F. G. Miller(1984-85). Attire, physical appearance, and first impressions: More is les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3(1), 1-8.
- Paek, S.L.(1986). Effects of garments style on perception of personal trait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5(1), 10-16.
- Robertson, J.F.(1977). Grandmotherhood: A study of role conce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1), 165-174.
- Sara, H. M. & Jetse, S.(1985).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Grandparents: An Empirical Contribution to Conceptual Clarification. *Journal of Gerontology* 40(5), 621-626.
- Schneider, D.J., A.H. Hastorf, & P.C. Ellsworth(1979). *Person Perception*(2nd ed.). Reading, MA: Addison-Wesley.
- Sonnek, I.M.(1980). The grandparenting role

- in our changing society and its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ED 197845.
- Thompson, L. and Walker, A.J.(1987). Mothers as mediators of intimacy between grandmothers and their young adult granddaughters. *Family Relations* 36(1), 72-77.
- 詠節子・松平光男(1992). 高齢者の服装に対する印象の分析. *日本繊維消費科學誌* 33(1), 41-46.
- 綿引伴子(1994). 女子高等學生の 高齢者に 對する 關心と 影響を 與える 要因. *日本 家政學會誌*, 45(4), 331-341.